

코로나19 경구 항바이러스제 투여 우선순위 권고안

대한감염학회 코로나19 진료지침위원회

2022년 1월 14일

최근 중증 진행 위험인자가 있으면서 입원하지 않은 경증 혹은 중등도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경구 항바이러스제인 nirmatrelvir/ritonavir와 molnupiravir가 외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고, 우리나라에도 곧 도입될 예정이다. 이 약제들은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에서 경증 혹은 중등도 환자의 중증 진행을 예방하는 데에 있어 높은 효과를 보였으므로, 그동안 중증 환자에 국한되어 있던 코로나19 치료에 큰 발전을 가져오면서 환자의 예후를 향상시키고 보건의료체계에 가해지는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도입 초기에는 공급 부족으로 인하여 적응증이 되는 모든 환자에게 투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제한된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투여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감염학회 코로나19 진료지침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경구 항바이러스제 투여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다. 문헌 고찰과 외국 지침 검토를 통해 고려할 주요 요소를 선정하였고, 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지침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아래와 같이 투여 우선순위를 권고한다.

1. 코로나19 경구 항바이러스제 투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도에 따라 ① 면역저하, ② 환자의 연령, ③ 중증 진행의 위험인자인 기저질환 유무, ④ 접종 여부 순서로 판단한다.
 - A. 환자의 연령은 75세 이상, 65~74세, 65세 미만으로 분류한다.
 - B. 면역저하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래 [표 1]에 기술하였다.
 - C. 중증 진행 위험인자인 기저질환은 아래 [표 2]에 기술하였다.
2. 소아청소년은 중증 진행의 위험인자가 되는 기저질환의 종류와 위험의 크기가 성인과 다르므로, 소아청소년에 대한 투여 우선순위는 대한소아감염학회의 의견 수렴을 권고한다.
3. 코로나19 환자에서 중증 진행의 위험인자는 다양하고, 위험인자가 되는 기저질환의 중증도도 서로 다르며, 여러 위험인자를 갖고 있는 환자도 있으므로 경구 항바이러스제 투여 결정에는 진료하는 의사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표 1] 코로나19 중증 진행의 위험이 높거나 예방접종의 효과가 낮다고 알려진 면역저하자

면역저하자

- 종양으로 항암치료 중인 사람
- 장기 이식 후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사람
- 최근 2 년 이내에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사람
- 중등도 혹은 중증의 일차성 면역결핍
- CD4 T 림프구 수가 200 개/mm^3 이하 혹은 치료받지 않고 있는 HIV 감염
- 고용량 스테로이드나 기타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심한 면역저하자(면역저하자에게도 모두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 혈액학적 종양으로 치료 중인 사람
-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환자로서 만성이식편대숙주병 혹은 다른 이유로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사람
- 1 년 이내에 B-cell depleting therapy (rituximab, alemtuzumab 등)를 받은 사람
- Bruton tyrosine kinase 억제제를 투여 중인 사람
- Chimeric antigen receptor T cell 치료받은 사람
- 1 년 이내에 고형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폐이식 제외)
- 모든 폐이식 환자
- 고형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으로서 최근 급성 거부반응으로 치료받은 사람
- Severe combined immunodeficiency 가 있는 사람
- HIV 환자로서 CD4 T 림프구 수가 50 개/mm^3 미만인 사람

면역저하자의 정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아래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UK Health Security Agency. Chapter 14a – COVID-19 – SARS-CoV-2. In: The Green Book.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vid-19-the-green-book-chapter-14a>. 24 December 2021. Accessed on 10 Jan 2022.

[표 2] 코로나 19 중증 진행 위험인자인 기저질환

우선 투여가 권고됨

- 만성 폐질환
 - 만성폐쇄성폐질환
 - 간질성 폐질환
 - 천식
 - 기관지확장증
 - 폐색전
 - 폐동맥 고혈압
 - 기관지폐이형성증(bronchopulmonary dysplasia)
- 심장질환
- 만성 신장질환
- 당뇨
- 암
- 뇌혈관 질환
- 아래의 만성 간질환
 - 간경화
 - 비알코올성 지방간
 - 알코올성 간질환
 - 자가면역성 간질환
- 비만
- 임신 혹은 최근 임신력
- 남성성염증

우선 투여를 고려할 수 있음

- 흡연
- 결핵
- 아래의 정신질환
 - 기분 장애(우울증 포함)
 -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
- 신경학적 질환(치매 포함)
- 고혈압
- 물질사용장애(substance use disorder)

주의: 이 목록은 중증 진행 위험인자로 알려진 모든 기저질환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며, 이 목록에 없는 기저질환이더라도 진료하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투여를 고려할 수 있다.